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3.19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불안한 유가..미국 증시 하락

- 유가 상승, 낮아진 금리 인하 가능성..미국 증시 1%대 하락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경제 성과 진전 없으면 금리 인하 없다"
-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 급등. 브렌트유 배럴당 110달러 상회

Summary

3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예상을 웃돈 생산자 물가지수와 불안정한 국제유가, 그리고 매파적으로 읽힌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을 반영해 일제히 1%대 하락 마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1.63% 하락한 46,225.15에 마감해 종가 기준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고, S&P500지수도 1.36% 하락한 6,624.70에 거래를 마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46% 하락한 22,152.42에 마감했으며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1.64% 하락 마감함.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격인 정책 금리를 현행 3.5~3.75% 수준으로 동결. 올 들어 두 번째 동결 결정으로 점도표에서 연준은 올해 1회 인하 전망을 그대로 유지. 경제전망(SEP)을 통해 올해 물가 전망을 종전 2.4%에서 2.7%로 올렸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4%로 상향, 실업률 전망은 4.4%로 유지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으며 고용 상황도 그런대로 유지될 것이란 시각을 드러냄.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논의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 조치가 인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에 근접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등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냄.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일회성 가격 효과가 경제 전반에서 해소되고 상품 물가 상승률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 최근의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해서도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 다만 중동 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칠 완전한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언급. 이후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6월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할 확률을 한 달 전 38%에서 93%로 크게 높여 반영했으며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란 확률은 한 달 전 5%에서 이 날 52%로 높아짐. 6월까지 금리를 0.25% 오히려 인상할 것이란 확률도 2%로 반영.

국제유가 급등으로 반영된 전황에 대한 불안은 지속되는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이날 국제유가 급등은 이란 에너지 시설에 가해진 공습에서 비롯.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피격받은건 이번이 처음.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 남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란은 이번 공격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 LNG 생산시설 공습으로 보복했고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혀.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로 날아드는 미사일 4기를 격추했다고 밝힘. 한편 미국은 이번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이런 가운데 브렌트유는 재차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WTI 역시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

한편 이 날 발표된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0.3% 상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유가 상승, 연준 금리 경로에 대한 부담과 맞물려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함.

(다우 -1.63%, 나스닥 -1.46%, S&P500 -1.36%, 러셀2000 -1.64%)

특징종목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임의소비재와 소재, 필수소비재 업종의 낙폭이 2% 이상으로 컸음.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 기업도 모두 하락했으며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속에 경기순환주 비중이 높은 다우지수 낙폭이 3대지수 중 가장 컸음.
월마트(-2.48%), 프록터 앤드 갬블(-3.15%), 코스트코(-1.63%), 맥도날드(-3.24%), 스타벅스(-5.03%) 등의 소비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으며 스타벅스는 RBC 캐피털이 투자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하향해 낙폭이 더 컸음. RBC는 스타벅스의 마진 경로가 불확실하며 투자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01%)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에서 강보합 마감. 마감 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은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급증한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현재 진행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년 전에 비해 200% 가량의 성장세를 예상하는 시장 기대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었지만 연초 이후 46% 이상, 지난 1년간 350% 이상 상승한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
반도체주도 대체로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3% 하락 마감. 다만 AMD(+1.60%), 인텔(+2.20%), 샌디스크(+4.65%) 등은 강세. AMD의 리사 수 CEO는 한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전일 삼성전자와 HBM4 우선 공급과 파운드리 협력 MOU를 체결함. 인텔은 고성능 노트북용 프로세서 신제품을 공개하며 3거래일만에 반등.
중동 지역을 둘러싼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셰브론(+0.32%), 코노코필립스(+0.63%), EOG 리소시스(+1.33%), NRG 에너지(+2.82%) 등은 강세를 보였고, 태양광과 원전 등 대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솔라엣지(+4.66%), GE베르노바(+1.71%) 등도 강세.
전운이 짙어지는 형국에 록히드마틴(+0.94%), RTX(+0.60%), 노스롭 그루만(+0.11%) 등의 방산주도 상대적 강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국제유가가 다시 뛰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멀어졌다는 평가 속에 일제히 상승. 통화정책에 민감도가 높은 2년물 금리는 거의 10bp 상승해 3.772%를 기록했고 10년물과 30년물 금리도 각각 5bp 내외 상승.

달러화도 FOMC 이후 강세로 최근 이틀간의 하락분을 만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64% 상승, 100선을 재차 상회. 달러 강세를 반영해 달러/엔 환율은 159.82엔까지 상승했고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도 1,500원을 재돌파.

상품 시장에서는 공급 불안정성이 부각되며 국제유가가 일제히 상승.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재차 상회했으며 천연가스 가격도 5.59% 상승. 달러 강세를 반영해 금과 은, 구리 등 금속 가격은 일제히 3% 내외 하락.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